

조선대 조기 정상화 촉각

사분위, 현 집행부 등에 정이사 후보 추천 요구

교과부, 임시이사 5명 확정...재파견도 가속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장기간 이사회 공백상태를 빚어온 조선대와 관련, 이해당사자인 현 집행부, 옛 경영진(박성삼씨 등 5인의 종전 이사),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정이사 후보 추천을 요구함에 따라 조선대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교과부는 임시이사(총원 9명) 중 5명을 최종·확정해 조선대에 통보하는 등 조선대 임시이사 재파견도 가속화되고 있다.

10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사분위는 지난 8일 현 집행부를 비롯해 조선대와 관련된 3개 단체에 각각 정이사 후보 9명 이상을 오는 26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통보했다.

사분위는 3개 기관으로부터 정이사 후보 추천을 받으면, 28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향후 정이사 선임과 관련된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대 내부에서는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추진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는 지난 해 11월 조선대 정상화 과정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사분위에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했던 '종전 이사'측이 풀연 후보 명단 제출을 취소하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 지 급까지 이사 부존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지난 달 23일 자들로부터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 받더라도 또다시 지난 해와 같은 전례를 되풀이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지난 달 23일 선임된 임시이사 후보 7명 중 5명을 최종·확정해 학교법인 조선대에 통보했다. 사분위는 지난 달 23일 허형만 목포대 교수, 황진철 서울대 시설관리국장, 노종희 한양대 교수, 박원기 KBS광주방송총국장, 유수택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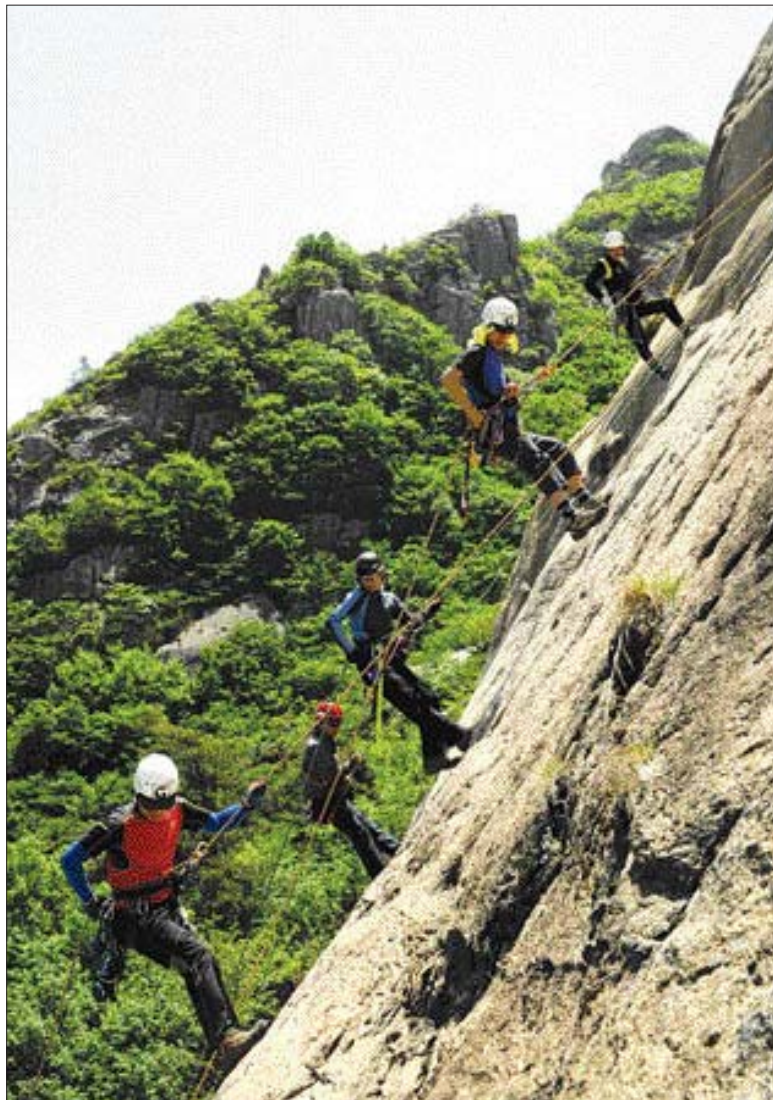
광주시 행정부시장, 최영하 전 광주은행 상무이사, 황덕호 서울대 교수 등 7명을 조선대 임시이사 후보로 선임해 교과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허형만 교수와 황진철 국장은 일선상의 이유로 선임을 고사했고, 교과부는 이들을 제외한 5명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임시이사로 확정해 조선대에 통보했다.

여기에 사분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와 장병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찬기 전라북도 부교육감, 김민한 고려대 교수 등 4명을 나머지 임시이사 후보로 선정해 교과부에 추천했다.

그동안 정이사 체제 전환을 강력히 요구해온 조선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분위가 정이사 후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사분위가 향후 정이사 선임 날짜 등 정상화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정상화 문제는 언제까지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산악구조대 암벽 훈련

광주시산악연맹 산악구조대(대장 문대영) 신규 대원들이 10일 월출산 시루봉 암벽에서 로프에 매달려 하강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2분 해질 19시 26분 달돋이 21시 43분 달질 06시 28분

봄날은 간다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 늦게 차차 흐려지겠다.

광주	맑은 뒤 흐림	16/28°C
목포	맑은 뒤 흐림	16/23°C
여수	맑은 뒤 흐림	15/22°C
완도	맑은 뒤 흐림	15/23°C
구례	맑은 뒤 흐림	13/27°C
해남	맑음	14/23°C
장흥	맑은 뒤 흐림	14/23°C
고흥	맑은 뒤 흐림	13/25°C
순천	맑은 뒤 흐림	15/24°C
영광	맑은 뒤 흐림	16/26°C
진도	맑음	15/23°C
전주	맑은 뒤 흐림	16/29°C
남원	맑은 뒤 흐림	11/28°C
옥산도	맑은 뒤 흐림	14/20°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	1.0~1.5m	목포 03:30	08:37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	1.0~2.0m	15:11	20:30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1.5m	여수 09:49	04:05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22:35	15:49

◇주간날씨 기상인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7/22	14/27	13/28	14/27	15/22	15/25

내일 단비 5·18 민주화운동교과서 무더위 한풀 꺾일 듯

내일 출판 기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교과서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

지난 9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0.5도를 나타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지난 해 5월 3일 기록한 31.4도의 뒤를 이어 5월 상순 기온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두번째 높은 기온이다.

연일 이어진 고온현상은 12일 한차례 비가 온 뒤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광주·전남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으며, 12일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주말까지 30도에 이르는 고온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말벌 조심

광주·전남지역에 때아닌 '말벌 주의보'가 내려졌다. 주로 8~9월 사이에 대거 출몰하던 말벌이 앞당겨진 무더위로 인해 일찍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일선 소방서 등에는 이미 지난달부터 말벌에 쏘였다는 신고와 벌집을 퇴치해 달라는 구조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

▲때아닌 벌들의 습격=10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 오후 3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빌라 외벽에 말벌 집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제거 작업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사는 이모(32)씨가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

이상고온 현상으로 개체수 급격히 증가

광주 주택가 습격...소방대 출동 잇따라

으며, 지난달 23일과 21일엔 북구 운암동 김모(45)씨의 주택과 서구 화정동 주택에 각각 말벌 집과 말벌 때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16건으로, 매년 말벌 출현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다.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벌집 제거 건수는 58건. 이는 2007년(50건)과 2006년(28건)에 비해 각각 16%, 107%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말벌의 출현은 번식기인 8월과 9월 등 주로 여름철에 집중됐다. 지난해 8, 9월 벌집 제거 건수는 842건으로, 2007년 같은 기간(333건)보다 2.5배 이상 급증했다.

▲빨리진 벌들의 습격=왜? =전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북구 서문동) / 순천점 061-752-9948 / 목포점 061-262-9200 / 송정점 062-227-9970 / 덕산점 061-851-2422

광주일보 창사 57 주년을 축하합니다.

광주광역시: 062-227-9940 / 광주광역시: 062-227-9940 / 광주광역시: 062-227-9940

광주광역시: 062-227-9940 / 광주광역시: 062-227-9940 / 광주광역시: 062-227-9940